우울증 30대 치과의사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지난 3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북구 M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에서 김모(31·강원도 원주시)씨가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장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처가에 머물고 있던 김씨는 이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렸으며, 방안에 '엄마,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야'라는 등 자신의 심경이 담긴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강원도 횡성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다 어려움을 겪자 최근 문을 닫았다. 이후 선배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해오면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유권자에 문자 메시지 발송 여수시장 예비후보 등 고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여수시장 및 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 6명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예비후보자인 A씨는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의원 예비후보 B씨는 지난달 초 지지자의 집에 전화기 3대를 설치하고 전화 홍보를 하도록 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 C씨는 지난달 23일 선거공약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시의원 예비후보자 D씨는 지난달 24일과 29일 자신의 선거구 아파트 2개소 출입구에 명함을 뿌렸으며, E씨는 지난달 26일 선거구 아파트 우편함에 고졸인 학력을 대학원 수료과정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 2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도의원 예비후보자 F씨는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하게 해 자신을 홍보토록 한 혐의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박지원씨 징역 20년 추징금 148억 구형

대검 중수부와 대북송금 송두환 특별검사는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현대 비자금 150억 수수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증거 불충분)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48억5천216만여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황칠나무 사랑 30년' 상무고 정병석 교장

'돈 버는 나무' 1만여 그루 직접 심어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정병석씨가 나주시 대호동 자신의 농장에서 황칠나무 잎사귀를 살펴보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0년 전 어느 날. 대학생 정병석(56·현 광주 상무고 교장)씨는 '완도에 황칠나무가 있다더라'라는 소문 하나만 믿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사라진 나무'라 불리던 황칠나무를 찾아서였다.

한그루도 찾지 못한 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정씨는 밭을 매고 있던 한 농부를 만났다. "이 근방에 황칠나무가 있다면서요?" 농부는 숲 속 깊숙한 곳으로 정씨를 데려가더니 앞을 가리켰다. 황칠나무 군락이 석양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1천년의 비밀' 연구 또 연구 공예품·항암음료 등도 개발

당시 전남대 생물학과에 다니던 정씨는 황칠나무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경제수목'이라는 것 외에, 중국 당 태종 때에는 백제에서 가져다가 황실의 가구, 장군들의 투구와 갑옷에 칠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그를 황칠 연구에 매달리게 했다. 정씨는 완도 보길도와 진도, 해남 두륜산 등 전남 도서지역과 해안 일대에 자생하고 있던 황칠나무를 찾아냈다.

'한국황칠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그는 마침내 황칠 공예품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고, 미생물을 촉매로 활용한 황칠 채취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지난 92년에는 황칠 특성 연구로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97년 완도 보길도 1천500평의 임야를 장기임대, 1만여 그루를 심었다. 나주의 농장에도 200여 그루를 식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전남대 생물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황칠 관련 논문을 준비 중이다.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芝峰類說) 복용(服用) 편에 보면 '옷을 황칠로 염색해 입으면 벌레가 꿰이지 않고,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라고 나와있어요. 향기는 안식을 주기에 손색이 없고요, 접착력이 강해 전통적으로 탁월한 천연 도료로 쓰였죠."

그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황칠이 200도를 견뎌내는 내열성·내구성·내습성·빛깔의 우수성을 지녀 래커나 니스, 옻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수한 천연 도료라는 것, 항암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차례차례 밝혀냈다. 1천 년 동안 숨겨졌던 황칠나무의 비밀을 하나 둘 풀어낸 것이다. 그의 이런 노력에 김원본 광주시 교육감 등 황칠 마니아들이 생겨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정씨는 요즘 황칠의 항암 성분에 주목, 건강음료 개발에 대부분의 여가를 할애하고 있다. 또 완도군 약산면 일원에 '황칠나무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생물산업과 연계한 '황칠나무 지원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전남도에 제안했다.

정씨는 "황칠나무와 함께한 지난 30년은 날마다 식목일 이었다"며 "전남의 산에도 황칠 같은 경제성 높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환갑' 맞은 식목일

나무 100억여 그루 심어 산림 가치 58조 8,813억

식목일이 환갑을 맞았다. 지난 194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니 사람으로 따지면 61세가 된 것이다.

일제의 산림수탈과 6·25 한국전쟁 등으로 극도로 황폐해졌던 우리나라의 산림은 그동안 푸르게 녹화됐다. 지난 1950년대 당시 ha당 임목축적(숲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재의 양)은 현재의 9% 수준인 5.7㎥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고 1967년 산림청이 창설되면서 2001년까지 407만ha에 100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올 현재 641만ha에 이르는 산림의 가치는 임업총생산 기준으로 3조1천972억원 수준. 하지만, 수질 및 대기정화기능 등 공익적 가치를 환산하면 58조8천813억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매년 약 12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국내 임산물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미미하다. 국토의 64%가 산림이면서도 목재 자급률은 8%에 머물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숲에 나무가 너무 빽빽이 심어져 있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30년생 나무의 경우 3평에 1그루 정도가 적당하지만 우리 산림은 1평당 1그루씩 나무가 자라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계획으로 연간 20ha씩 총 100만ha의 산림에 대해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시급히 가꾸어야 할 숲이 전체 산림의 34%인 215만ha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사업을 계속해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 현재 59조원에 달하는 산림가치를 오는 2010년까지 100조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림청은 이외에도 지난 2004년부터 추진 중인 국유림 개방사업을 활성화시켜 올해 말까지 국유림 120곳, 2만ha를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등이 국유림을 이용해 지역발전 및 소득증대 사업을 기획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전남도는 164억원을 들여 2천859ha에 754만7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반면 산불 등으로 모두 44ha가 소실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참 〈6797〉 김종두

40대, 고향 선배에 흉기 휘둘러

영광경찰은 4일 "무시했다"며 고향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경찰관 도움으로 17년만에 父子상봉

쌍나팔

○…미국으로 이민간 뒤 아버지와 17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40대 남자가 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감격의 상봉.

○…4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결혼 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떠난 박모(42)씨는 17년 만에 고향인 광주시 남구 주월동을 찾았지만, 그동안 전화통화 등을 자주 못해 연락이 끊겼던 부모님의 소식을 알 수 없자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는 것.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남부경찰서 주월 치안센터 주병삼(52)경사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각 동사무소 등에 연락, 서울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어렵게 찾아 부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